

무안삼향북초, 학생 중심 여름방학 돌봄교실로 활력 발산

기초학력 수업·태권도, 영법 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작은 학교에서만 가능한 특징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 증가

무안 삼향북초등학교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방학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욱 풍성한 방학 생활을 준비했다. 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1~2학년)과 연계형 돌봄교실(3~6학년)로 나뉘어 운영했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했다.

초등돌봄교실에서는 기초학력 수업, 태권도, 영법 수영, 음악출렁이, 피아노, 주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연계형 돌봄교실에는 기초 학력 및 교과 학력 수업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과 뉴스포츠, 주산, 즐거운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한 윤정연 교감은

“여름방학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과 활동을 소개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교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했다”며 계획 의도를 전했다.

1학년 한 학부모는 “방학 동안 아이를 돌볼 곳이 부족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돌봄교실 덕분에 걱정을 덜었다. 더구나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너무 만족하고 영양가 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셔서 아이들의 점심 걱정을 덜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4학년 한 학생은 “여름 돌봄교실에서 친구

들과 함께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손향미 교장은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알찬 방학 생활을 보냈다. 특히 기초학력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서 방학 중 학습결손을 최소화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향북초등학교는 전교생 36명의 작은 규모의 학교로, 이러한 특징이 여름방학 돌봄교실에서도 돋보였다. 작은 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가능하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시 학생들 간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교직원들



도 학생들과 직접 함께 활동하며 더욱 밀착된 교육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며, 학생들은 보다 즐겁고 평안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작은 학교에서만 가능한 이런 특징들은 삼

향북초등학교의 여름방학 돌봄교실이 더욱 풍성하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삼향북초등학교는 이러한 장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Wee센터, 가족사랑 마음 소통 프로그램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최근 관내 초·중학교 10가족 40명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소통·나눔·기쁨' 마음 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가족사랑 소통·나눔·기쁨' 마음 소통 프로그램은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우리가족 마음 소통'에 특화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 가족간의 다양한 협력 및 체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만드는 순천 Wee센터만의 특색 프로그램이다.

이번 '가족사랑 소통·나눔·기쁨' 마음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한 강좌와 역할극상당이 진행되었다.

이 활동 안에서는 가족간의 수용과 따뜻한 배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풀어주기' 활

동과, 긍정적인 소통의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표현하기'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각자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학생(삼산초 3학년)은 “엄마 아빠랑 함께 뛰어 놀아서 정말 좋았다”며 자녀와 프로그램에 동참한 학부모는 “가족들과 웃으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새삼 행복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윤 교육장은 “이번 '가족사랑 소통·나눔·기쁨' 마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건강한 소통능력이 증진되어,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교육청, 지방보조금 편성·집행 투명성 강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감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 방식 및 규정이 같아 동일한

보조금심의위·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 외부 위원 7명 위촉

으로 구성되며 위촉된 외부 위원 7명과 내부 위원 2명이 참여한다.

위촉위원들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교부,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위촉식 후, 보조금심의위는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3년 보조금 공모신청자 선정'을 안건으로 한 제2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들은 대안교육기관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 및 청소년문화활동 단체 지원 사업을 심의해 34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보조금 예산이 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올바르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양 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년의 임기 동안 맡은 바 책무를 다 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영광 영산성지교, 안전 실천 주간 운영

2학기 개학 맞이해 안전 실천 주간 지정

영광 영산성지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안전 실천 주관을 지정하여 운영했다.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사고와 위협성에 대해 인지하고 상황별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된 이번 '안전 실천 주간'에서는 전복 임실에 119 안전 체험관에 방문하여 물놀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했고, 교통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영광소방서의 협조로 이루어진 합동 소방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자신

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헤아려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실천 주간'에 함께 실시한 성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실생활에서 발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소그룹 대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영광=서희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